

임상간호교육의 진행 과정

간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임상에서의 간호 교육은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그 내용이나 진행 과정에는 많은 변천이 있었다고 본다. 과거의 임상간호교육은 칠판 앞에서 선생이나 선생이 간호하는 것을 보고 그 기술을 익혀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이룩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간호에 있어서의 인간이해가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인간중심의 간호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위한 인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학생중심의 임상간호교육을 통하여 학생에게 환자중심의 간호를 하게 하기 위한 창조적인 임상간호교육의 진행에 두었다.

일반적으로 과정 혹은 진행이라면 순서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작업의 순서에는 지적으로 진행되는 인간활동이어야 한다. 과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 배운 지식의 활용, 또는 교환, 어떤 결정적인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

교육의 과정이나 진행은 이 모든 것을 다 복포로 하는 것이다. 이 과정들은 또한 일정의 조직체내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진행과정이란 한 조직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존재하며 그 목적에 따라 과정이 달라진다.

간호학교도 인간이 만든 조직체로서 간호교육을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간호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유능한 간호원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있다. 이말은 엄밀히 말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다. 어떤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목표인 훌륭한 간호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느냐가 주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패는 그 과정과 진행에 좌우된다고 본다.

임상간호교육이란 간호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환자간호를 위한 학생들의 실습경험을 직접 계획하고 조직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간호교육의 역할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지에 옮겨서 이론과 지식을 환자간호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吳 嘉 實

<연세간호대학강사>

임상간호교육은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창조란 개인이 과거의 전혀 관계없는 경험에서 새롭고 유용한 독특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창조적인 임상교육이란 이런 개념에 맞는 새롭고 독특하고 유효하며 변화성있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나는 이것을 학생 스스로 배우는 목적을 만들게하고 그 의미를 찾으며 문제해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실험하고 확신하므로써 자신을 발전시키고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의 진행을 위해 나는 Bela Banathy^①의 Instructional System원리를 이용한 임상간호교육진행순서를 말하려 한다.

1.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목표설정

이것은 한 집의 추춧돌과 마찬가지로. 얼마의 의미있고 바람직한 목표를 만드는가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성과와 직결된다고 본다.

목표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행위의 변화를 말한다. 이것은 학생의 목적이지 선생의 목적이 아니며 교육의 목적은 행동의, 행위의 변화이므로 마지막 과정의 끝에 학생들의 행위가 어떻게 어떤방향으로 바뀌었나를 측정할 수 있게 명시되어야 한다. 상세히 목적 쓰는 법이 명시된 많은 책중에서 ^② R. Mager의 Preparing Instructional Objectives를 간단히 소개하고 지엽적인 설명은 여기서 생략한다.

임상실습에서의 목표 설정시에 유의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각 지식영역의 발달을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지식의 발달, 태도의 변화,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하므로써 학생들이 언제 어느때에라도 그 목적에 기술된 행위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측정이 가능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배워서 안다는 것은 의사소

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 줄 수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또한 목표설정할때는 그전까지 배운, 실습한 것에 계속될 수 있는가를 알아 봐야 하고(계속성) 순서적으로 나열돼 있는가 또 다른 분야들과 통일성이 있게 만들어 졌나를 생각해야 한다. 선정된 목표들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아야 하며 주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양적 부담을 주지않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항상 경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지 임상에서 쓸 수 있는 목표의 예를 들겠다. 1. 위기에 있는 가정의 간호요구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2. 그에 따른 Crisis Intervention을 계획한다. 3. 계획을 실천하게 한다. 4. 평가하게 한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이 무엇을 할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a. 학생들의 요구; 학생들의 과거 간호경험의 배경, 간호학교에 들어온 동기, 학습능력과 성취도, 가정적 배경과 흥미, 어떤식의 교육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그들의 가치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b. 사회의 요구; 사회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정도, 사회경제정도, 국민의 간호 혹은 건강요구, 보건시설을 참고로 한다. c. 교육학 권위자의 제언; 이것은 교육학적 면에서 어떤 교육목표가 효율적이며 실용적인가? 또 부족과목이 전체 교육과정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d. 간호전문직의 규범; 사회에서 규정된 간호직의 도덕이나 행위의 규범에 맞도록 실습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상의 네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은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철학을 검토해야 한다. 어떤 방향의 교육목표가 있으며 그를 위한 간호교육의 자질은 무엇이 요구되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의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육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여러가지 이론들을 참고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의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가 만들어지고 그위에 과목과목의 목표도 수립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임

① Bela Banathy, *Instructional System* Belmont, Calif.: Fearon Publishers, 1968

② Robert F. Mager, *Preparing Instructional Objectives*. Palo Alto, Calif.: Fearon Publishers

상에서의 각 분야의 특수 실습목적이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2. 설정된 목표에 따라 실습과제의 분석

일단 학생들이 보여 주어야 할 마지막 행위가 목표에 잘 서술되어 있으면 “우리는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서 그 목표에 기술된 행위를 보여 줄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을 해 봐야 한다. 다른말로 학생들에게 필요되는 지식과 태도, 기술면에서 그들의 능력 한계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습과제를 결정했을 때 그 과제속에는 이미 옛날에 배운 과제가 있고 또 새로 배울 과제와 함께 포함된다고 본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이 실제로 배워야 할 과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그 분석이 제대로 안되면 배우는 내용이 적은 실습이나(과소기대) 그 반대(과대기대 과제)가 되기 쉽다. 그래서 먼저 실습과제를 알아본 다음 이미 그전에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빼면 실지모베울 내용이 된다.

이 분석의 필요한 이유는 임상실습의 특수성 때문이다. 흔히 학생들의 불명이 같은 것만 되풀이되는 실습이라고 한다. 정말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습시에 보여주어야 할 학습내용은 단순히 외우거나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흡사 완전히 배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위환경이 조금 달라지거나 복잡한 경우에 처해지면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가끔 본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의 실습과제를 학문적, 개념적 이해를 겸비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 알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빼버리면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실습경험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는 그 과제는 어떤 형태의 학습형태에 적절한지를 규정해야 한다. 항상 일률적인 주입식 방법만이 모든 학습과제를 위해 좋다는 법은 없다. 학습의 형태에 대해서는 Gagne가 설명한 것으로 Signal Learning, Response L., Motor & Verbal Chains, Multiple Discrimination, Concept L. Problem solving^① 이 있다고 했다. 어떤 과

제를 위해 어떤 형태의 학습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3. 실습교육의 구체적 계획안 작성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단계이다. 계획안 작성시에 생각해야 할 문제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그 실습을 Master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나? 또 누가, 무엇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나? 언제 어디서 하는게 좋은가? 이다. 우선 실습과제를 기초로 하여 실습전체 기간중 해야 할 실습활동등을 전부 나열한다. 다시 말해서 실습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를 위한 학습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계획이라든가, 세미나, 매일의 실습일지 등으로 선택한다. 그다음에는 누가 혹은 무엇을 이용하여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를 결정해야한다. 실습을 위한 적절한 장소나 기관의 선택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간호의 시설, 간호를 위해 쓰여질 물건과 공급의 양과 종류 간호행정체제와 그 조직, 지역사회외의 보건의 및 간호기구등을 잘 조사하여 실습내용과 실습경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과 사람에게 알맞게 결정되어 맡겨져야 한다. 이때 명심할 것은 실습의 내용과 원하는 실습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이나 기타 구조를 조절하여야 지 사정에 맞추어서 실습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또하나 명심해야 할 일은 선생이 만능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좋은 법이 아니다. 선생은 옛날같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Resource Person으로 어떤식으로 어디서 공부하는게 학생에게 유리한지를 알려주는 Information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담당 계획안을 만들 때는 또한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이용가치가 있게 배정해야 한다. 보다 창조적이고 의미있는 실습을 위해서는 이 배정도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학생의 의견을 참조도 해야 한다.

^① Robert M. Gagne, *the Condition of Learn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4. 시행 및 결과분석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태까지의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말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실습과제의 분석은 정확히 되었는가? 계획안은 실습내용과 실지 사정에 부합되게 잘 배정이 되었는가? 또한 계획된 실습교육 내용은 다른 과목이나 학교전체 교육방향에 알맞게 계속성있고 순서적이며 통일성있게 짜여졌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같은 과목에서나 혹은 다른 학년에서의 임상실습과 계속성이 있는 종적관계를 말한다. 이미 습득한 기술이라도 반복이 필요하면 다시 하게 하고 개념의 이해는 단순한데서 부터 더 복잡한 개념의 이해를 돕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지식과 기술을 순서적으로 배워서 앞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실습할 수 있게 해야한다. 실습교육내용은 횡적으로도 연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서 각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분석이나 이해에 도움이 되고 비교해서 다른점을 찾아 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처음 단계부터의 계획이 원만한 것이냐를 알기 위한 한 방법으로는 우리 현실에서는 좀 멀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고, 보다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몇몇의 학생을 선택하여 실제 장소에 가서 예비실습을 해보는 방법이다. 물론 복잡하고 경제적 시간적 문제가 대두 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는 실지로 실습의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부터는 창조적인 임상실습을 위해 창조적인 선생의 노력과 융통성이 많이 관계된다. 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적인 임상실습교육으로 좋은가—하는 예를 들어보려 한다.

첫째로 학생들의 매일의 실습 내용과 과제를 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조직한다. 선생은 전체 과목실습의 목표를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학생의 실습, 학습요구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선생은 학생이 간호에 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의 순서결정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하도록 도와주

고 예기치 않게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학생 스스로 결정했던 문제의 해결방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도 선생의 판단에 두려움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새로 계획해서 출발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강의시간에 배운 과학적 지식과 개념, 원리들을 광범위하게 응용하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도 학리와 실제를 잘 병합하도록 지도 한다. 때로는 반복되는 학습이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선생은 자주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행한 일에 대해 학문적인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세번째는 관찰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Zimmerman^①이하 몇사람의 간호과정의 첫 단계는 환자 사정이다. 이 사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은 관찰에 의해되며 그 관찰의 정확성 여부에 따라 간호요구도 좌우되므로 고도의 관찰기술이 간호원에게는 필수적이다.

네번째로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찰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모아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 학문적인 이론과 개념을 적용시켜 정확한 판단을해서 간호의 수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전술한 목적 지향의 간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간호계획이 이것을 돕는데 좋은 방법이다.

다섯번째로 대인관계의 이해와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인간의 행동이해의 학습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하고 人間이해와 동정으로 만족하고 원만한 환자관계를 돕게한다.

여섯번째로는 운동기술의 발달을 도와준다. 단순히 남의 일하는 순서를 암기해서 모방하지 않고 학생 자신이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하도록 한다. 어느정도 학생이 조희되는 민첩한 행동까지는 시간이 요하므로 처음의 행동은 도와준다. 기술활동도 목적에 적합하게 되는지 과학적인 배경을 갖고하는지 주시하고 잘 잘못의 평가를 피하고 위험한 경우에 이르기전에 잘못을 바꾸

① Donna Zimmerman and Gohrke, Carrol, "The goal-oriented Nurs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0, No. 2, Feb. 1970. p. 306-310

도록 한다. '이때는 말로 가르키는 것 보다는 선생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어 학생이 봐서 깨닫게 한다. 적절한 휴식을 주어서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서 간단히 미국의 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창조적인 실습교육의 진행을 예로 들겠다. 우선 학생들은 배 실습과정마다 자기의 목적을 써 온다. 개념교육이기 때문에 그 실습 기간중 마스터 해야 할 개념도 함께 써 온다. 선생은 그것을 참조로 해서 학생 개인인의 실습요구를 측정하고 계획을 한다. 그다음 실습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학생 개인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 목적달성이 되면 먼저 그 다음 실습으로 옮겨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좀 더 특창적인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가 목표설정, 장소선택, 임상교수 선택, 그 실습의 마지막 학점을 위한 연구과제의 선택을 다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것이 각 기관과 선생에 의해 인정이 되면 자유로 나가서 실습을 하고 돌아온다. 선생은 실습지의 선생과 학생의 숙제, 학생, 실습결과에 대한 평가등을 참고로 해서 결과를 만든다. 실습에 접수가 없고 Pass와 Fail이 있는 곳, Satisfactory와 Poor만 있는 곳 등 다양하다.

이상의 실시에 따라서 당연히 평가가 되어져야 한다.

첫째는 실습교육 과정의 처음단계부터 재검토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의 기술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행위를 위한 언어로 돼 있다면 이것은 매우 간단한 과정이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임상간호교육 진행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교육의 목표라고 하겠다. 종래의 선생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선생은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Resource person 이다.

변화하는 학생들의 주위환경, 학습환경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보조를 같이해서 임상간호교육도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 배울 수 있는 수준에 적합한 실습

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환자중심의 간호를 마련할 수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창조성있는 임상간호 선생은 누구인가?에 대해 다음의 시를 소개한다.

내 선생님

그는 언제나 구부러진 의문표로 괴롭혔다.

적에 있는 것 만큼 책에 없는것도

가르쳤고 Euclid's의 강의 내용도 연기한 채 창 밖의 종달새 노래소리도 들은했다.

그는 언제나 왜? 라는 가시돋힌 질문을 계속했다.

게으름뱅이는 없이하고

우리는 똑바로 서서—낙제는 하지 않았고,

우리는 두 발로 굳게 서서 사고에

의해서만 살아갔다.

현명한 우리선생님—매듭같이 딱딱하긴 했지만 나는 그 매듭을 좀 늦춰보려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 생각보다 한걸음 항상 앞서 있었다.

난 선생님이 나를 그에게 묶어버렸다는걸 깨달았다.

He was my teacher.^①

He harrowed minds with curving question marks,

*Teaching as much outside the book as in;
He'd listen out the window for spring larks,
Postponing Euclid's chalky discipline.*

*He kept the bur of "why" beneath the tail
Of every sluggard slouched down in his seat,
Our spines came stright—we did not dare to fail*

*And we survived by thinking on our feet
He was my teacher-wise-yet hard as knots,*

*I tried to pick him loose and so him
But he was miles ahead of all my plots.
I've found instead that he has tied me to him.*

① Seager, Ralph W. : Cup, Flagon and fountain. 1965. Coral Gables, Fla.: Wake Brook House, p. 65.